

오월의 어머니 사진전 여는 작가 김은주씨



'도청 앞의 이귀임씨'



'신수 1동의 임기영씨'

“여기, 여기... 한뼘한 그릇
덤덤한 어머니 모습 담아
치유와 평화 말하고 싶어”

12~18일 예술의 거리 원갤러리

1980년 그날, 외국 유학을 준비하던 스물 넷 아들이 화순 너릿재에서 부상자를 후송하다 총상을 입고 사망한 후 어머니는 30년이 지난 2월 처음으로 '그곳'을 찾았다.

계엄군이 총알에 맞아 하반신 마비가 된 당시 동상중 1학년 아들의 고통을 지금까지 지켜보는 어머니는 아들이 부상당한 곳에 단 한차례 눈길도 주지 않았고, 지나다니지도 않았다.

주저하고, 아파하는,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기록해 두고 싶어한 어머니들이 '그곳'으로 데려간 이는 사진작가 김은주(43)씨다.

서울 출신으로 계원조형예술대 사진예술과를 졸업한 그녀는 아이들 키우고 뒤늦게 사진 공부를 시작한 후 '어머니'의 모습에 영감을 맞춰왔다.

처음에는 '제3자의 눈'으로 광주의 아픔을 객관적으로, 또 정치적 사고나 역사의 눈높이 아닌 예술적 시각으로 담아내보자는 마음이었다.

울조 '5월의 집'에 둘러 처음 어머니들을 만났을 때는 그들이 쉽게 곁을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얼굴을 비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머니들은 힘들지

만 깊은 슬픔과 고통이 떠오르는 장소에 다시 서기로 결심했다.

자신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한을 안겨준 공간이지만 자신들의 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도 해 어머니들은 그 자리에 섰다.

전시 제목 '여기, 여기...'는 어머니들이 김씨의 손을 잡고 "여기야 여기"라며 절규하듯 외친 공간들이다. 처음으로 자식이 죽은 장소를 찾았을 때 한 어머니는 몸을 떨며 '이제야 와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떨궜고, 뱃속에 든 7개월된 태아를 잃어버렸던 기억을 꺼내놓아야 했던 이도 있었다.

김씨가 이번에 찍은 어머니들은 안성례·이귀임·이명자·이성순·임근단·한양남·박유덕씨 등 모두 41

명이다. 망월동, 기독교 병원, 전남도청 앞, 화순 너릿재, 광주교도소, 대인시장 앞에 선 어머니들의 덩덤한 모습이 영글에 담겼다.

"처음에 어머니들은 사진 찍는 걸 꺼려하셨지만 오랜 대화 후 막상 촬영 시간이 되자 스스로 의식을 치르듯 진지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한 서린 세월과 고통이 다 사라져 버리지는 않겠지만 감히 사진에서 보여지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통해 치유와 평화와, 용서를 이야기해보자고 말하고 싶네요."

이번 전시는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예술의 거리 원갤러리에서 열리며 가을에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 갤러리에서 한차례 더 관객들을 만난다.

김씨는 "어머니들의 연세가 평균 75세에서 기록으로도 남겨두고 싶은 생각이 많았다"며 "기회가 되면 5월 관련 단체에 기증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들이 총상 당한 화순 너릿재 부근을 30년만에 다시 찾은 김점례씨.

담백하고 푸근한 색 입힌 도시 풍경

조근호展 11~18일 신세계갤러리



'해변도시'

때론 명징한 장면보다, 흐릿한 풍경이 오래 기억된다. 이슬비가 맺힌 유리창을 통해 보는 바깥 풍경이 오랜 잔상을 남기곤 한다.

서정적인 화풍을 선사하고 있는 서양화가 조근호씨가 오는 11~18일 신세계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Free'를 주제로 도심과 자연 풍경에 담백하고 푸근한 색을 입힌 작품을 선보인다. 카메라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릿해진 사진처럼 아주 먼곳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물의 형태가 또렷하지 않다.

무엇보다 전작에 비해 색의 사용이 더욱 과감해졌고, 화면 구성이 간결해졌다. 도심 풍경과 더불어 순천만 등지의 자연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고, 사과와 배 등을 소재로 한 정물 연작도 눈여겨 볼

만하다.

조씨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과 대학원을 거쳐 선과 색,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광주비엔날레 주제전, 포천아시아 미술제 등에 참가했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오페라, 블랙코미디를 입다

강숙자 오페라라인 '버섯피자' 6~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전남대 강숙자 교수가 이끄는 강숙자 오페라라인이 블랙코미디 오페라 '버섯피자'를 무대에 올린다. 6~8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19세기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버섯피자'는 희극오페라의 대가라고 불리는 세이무어 바랍의 작품.

포르마조 백작과 결혼한 볼투푸아가 젊고 매력 있는 스키프리오와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네 남녀의 엇갈린 사랑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리고 있다.

법적으로 이혼이 금지된 터라 볼투푸아는 버섯 피자에 독버섯을 넣어 남편을 독살하려하지만, 백작을 홀모하는 하녀 포비아가 이를 엿듣고 백작에게 아내의 배신을 경고하는 바람에 일은 뒤틀리기 시작한다.

볼투푸아역에는 김성미·손숙경·신재희씨가, 스키프리오역에는 이상화·강동명·김성진씨가 출연한다. 포르마조 역은 조규철·마명준·장선근씨가 맡았다. 박장우씨가 지휘를, 김하정씨가 연출을 맡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역 화가들 구상대제전 참여

서양화가 강남구·문정호·최요한씨



서양화가 강남구·문정호·최요한씨가 오는 9~15일 서울시 서초동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는 '2011 한국구상대제전'에 참여한다.

이번 전시는 한가람미술관이 주최한 아트페어 '김과장 전시장 가는 날'의 일부로 100만원대의 구상 작품만을 따로 판매한다.

강남구씨는 화사한 색채와 리듬감 넘치는 화면 구성으로 표현한 '공간-생명력'연작을 선보인다. 꽃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배경을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처리해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

문의 02-514-929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강남구 작 '공간-생명력'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0,000원부터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Advertisement for moviehelic featuring cinema listings for Columbus Cinema, Megabox, and Cinus with movie titles and showtimes.